

새만금 남북2축도로 공사 입찰

더민주 도의원들, 지역업체 가산점 요구

“공동도급 30%·하도급 시 50% 지역업체 참여 권장은 실질적인 의미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새만금 남북2축도로 공사 입찰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그에 따른 가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영규(익산4) 더민주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더민주 소속 의원 28명은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발주한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 3·4공구 입찰에 지역 업체 참여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난 18일 주장했다.

새만금 남북2축 도로는 총연장 26.7km로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부안 하서면까지 새만금 내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6~8차 도로공사로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남북2축 도로는 총 4개 공구다.

이번에 발주한 3공구는 예정가 3,431억 원으로 현재 공고기준 국내 최대 규모 도로공사다.

4공구는 1,777억 원으로 전체 공사비는 5,20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다.

현재까지 3공구 사업에는 포스코와 대우, 대림건설 등이 경쟁하고 있고, 4공구는 현대, SK, 롯데건설 등이 수주경쟁을 하고 있다.

한편 발주처인 새만금개발청이 공동도급 30%와 하도급 시 50%의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업체 보장은 이뤄지지 않거나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최 대변인은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의 보장 없이 참여 권고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며 “지역업체 참여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체선정에 가점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는 그동안 새만금 사업 중 대규모 예산투자 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3조원이 이상이 들어간 방조제 1-4공구 사업과 두 개의 배수갑문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는 거의 없었다.

최근에야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 등에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돼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 소속 도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새만금 도로개발에 들어가지만, 지역업체에게는 자칫 그림의 떡 신세가 되고 있다”며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을 주어 새만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서 사업비가 큰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이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

도청 공무원직 임금 7.1% 인상

전북도와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내년도 임금 7.1% 인상에 합의했다.

20일 도와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금교섭을 이 같은 인상안에 지난 18일 합의하고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 같은 임금인상안과 기본급 3%, 직무수당 4만원, 호봉간격 3,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강우 자치행정국장과 도영창 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고민형 기자

도, 버 매입자금 213억 긴급지원

전북도가 버 매입자금 200여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에서 버 매입자금 213억원을 긴급 지원기로 했다.

버 매입자금은 연 1% 저금리에 대출기간 2년으로 7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지원된다.

또 앞으로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버 추가 매입에 필요한 자금 요청이 들어올 경우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2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용자한도를 확대했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물품장관은 “이번 버 매입자금 특별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은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국정교과서 폐기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구성 위원장 이병도 의원·부위원장 고미희 의원 선출

전주시의회가 18일 내년 예산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병도 의원(인후3, 우어1·2동), 부위원장에 고미희 의원(비례대표)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병도 의원은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 심의를 하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경제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도 전주시 예산안 규모는 1조 4258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2148억원, 특별회계 2110억원이며 예결위는 오는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이병도 위원장

고미희 부위원장



진안 문화재 지정예고 2건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 손내옹기 이현배씨



손내옹기 이현배씨

진안군은 지난 18일 전라북도로부터 2건의 문화재 지정 예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호남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가마로 알려지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성수면 ‘도토리 중평 가마터’와 진안 도자문화의 전통과 맥락을 이어가며 ‘진안고원형옹기’를 생산해오고 있는 손내옹기 이현배씨의 무형문화재 지정예고다.

대표적인 초기청자 가마터인 진안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된 가마터 조사에서는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벽돌가마와 진흙가마 각 1기가 확인되었으며, 청자와 청자를 구울 때 덮었던 갑발, 가마의 축조재료인 벽돌 등이 다수 출토된 바 있다.

가마터 조사결과, 진안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는 용인 서리(사적 제329호), 시흥 방산동(사적 제413호)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기청자 가마터로 확인되었다.

특히 호남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청자를 생산했던 가마터로, 벽돌가마와 진흙가마가 모두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 전과과정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진안군에서는 이번 문화재 지정예고를 통하여 향후 가마터 훼손 방지와 보존·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추가 발굴조사와 조사성과 축적을 통한 국가문화재 지정과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근 우리나라 대표적 초기청자 가마터로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예고를 받은 도토리 중평가마터와 함께 진안은 예로부터 수많은 도요지가 밀집했으며, 옹기의 몸을 이루는 태토가 많고 땀감이 풍성하여 옹기생산이 왕성했다.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손내옹기는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옹기장 이현배씨가 1993년부터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8년 세계유네스코 로부터 달항아리와 전골술이 우수수공예품으로 수상되어 예술성을 인정 받은 바 있으며, 옹기장 이현배씨가 이어가고 있는 진안고원형옹기는 일반적인 남부식 옹기보다 어깨가 훨씬 발달하여 있어 미이산처럼 솟아오른 힘과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옹기장 이현배씨는 1991년 옹기 제작에 입문하여, 전남 보성 박나섭 옹기장으로부터 남부식 옹기의 정형을 교육받았고, 1993년부터 백운면 손내옹기에서 옛날 화려했던 진안 도자문화의 전통과 맥락을 이어가며 ‘진안고원형옹기’를 생산해오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2건의 문화재 지정예고와 함께 진안의 전통문화가 이어가고 문화재 보존과 활용사업 추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뇌물 요구 순창군청 공무원 재심서도 징역 선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공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청 6급 공무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모 연구센터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업자에게 2천만원과 추가공사 대금의 10%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 063-288-9700 www.jjmaeil.com